

# 도민 “나는 건강하다” 자신감 ↓

### 도, '2022년 제주의 사회지표' 결과 발표 '건강상태 좋다' 응답 5년 새 8.3%p 하락 생활만족도·행복감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

제주도민의 건강 상태 인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민의 주관적 의식을 분석한 '2022 제주의 사회지표'를 28일 공표했다.

이날 공표한 '2022년 제주의 사회지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민의 43.8%가 평소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 45.9% 대비 2.1%p(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제주지역 건강상태 인식이 2017년 52.1%, 2019년 48.7%, 2020년 45.9% 등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민 69.8%는 평소 운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운동 종목은 걷기가 51.8%로 가장 많았고 헬스, 에어로빅 11.0%, 등산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의원이 5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 23.5%, 치과 병·의원 12.2% 순이었다. 이용 의료기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한방병·의원이 64.6%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제주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감은 10점 만점에 6.55점으로 전년 6.28점 대비 0.27점 상승했다.

또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65점으로 전년 6.44대비 0.21점 올랐다.

행복감은 6.50점으로 전년 6.29점 대비 0.21점 늘고, 걱정 정도는 4.47점으로 전년 4.64점 대비 0.17점 하락했다.

이번 제주도 사회조사는 도내 표본 3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30일 7개 분야·59개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다.

올해 사회조사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 ▷가구와 가족 ▷건강 ▷환경 ▷안전 ▷사회통합과 복지 ▷지역특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특히 도민의 일상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및 영향', '감기 행태' 등의 신규 지표가 포함됐다.

행정자료는 도 행정자료와 중앙부처 및 통계청 등에서 작성한 총 13개 분야·126개 지표를 재분류·가공해 수록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현 사회상을 측정·분석한 사회지표 결과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도 누리집→정보공개→제주통계포털→통계보고서→제주 사회지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 3명이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상극기자

# 음식점 대표 겨냥 7번 범행 시도

### 경찰, 어제 피의자 3명 검찰 송치... “식당 운영권 가로채려 범행”

#### 고의 교통사고·폭행 시도 CCTV와 순찰차 때문 포기

속보=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는 등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도 살인 혐의로 박모(55·경남)씨와 김모(50·경남)씨, 김씨의 아내 이모(45·경남)씨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주택에서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집에 있던 둔기로 여러차례 때려 살해하고, 현금 수백만원과 명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이씨는 남편을 도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주변에 CC(폐쇄회로)TV가 많고 제한속도가 50km여서 범행을 하

더라도 실패할 것으로 보고 실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덮쳐 폭행하려다 우연히 순찰차가 나타나자 범행을 포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29일 박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해 범행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되돌아 갔다. 이어 김씨는 지난 5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채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11일 뒤 A씨를 살해했다. 또 김씨는 제주를 오가며 배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했으며, 범행 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의 고향 선배인 박씨가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와 2018년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로 올해 초 피해자에게 빌린 여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과 피해자 소유의 땅·식당을 공동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주변에는 피해자 식당의 공동 투자자라고 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 공동 담보를 빌미로 유가족을 회유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챌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을 빌미로 박씨가 자신의 담보권을 해제하면 유가족 측이 수석의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한다”며 “박씨는 이를 약점으로 잡아 담보권을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런 계획 아래 일감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김씨 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현금 3500만원 등을 미리 주고, 범행 후에는 채무 2억원 변제와 함께 식당 분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씨는 호송차에 타기 직전 “유족에게 할 말이 없으나, 범행을 사주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살인을) 사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같은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으며 아내 이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공동담보로 잡은 땅 역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송치 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해경, 화순항서 기관고장 화물선 구조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2시 40분쯤 화물선 A호(5126t, 파나마 선적, 승선원 14명)가 안덕면 화순항에 접근 중 엔진이 작동되지 않아 방파제 쪽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민간어선을 투입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구조대를 투입해 민간어선 B호(2.76t, 연안복합, 화순 선적)와 함께 에

인을 시도했다. 이들은 A호가 방파제 앞 3~4m 지점까지 밀린 상태에서 선수쪽에 연결된 예인줄을 맞은편 부두에 고정하고, 선미쪽 예인줄을 경비함정을 이용해 예인을 시도한 끝에 오후 6시25분쯤 화순항 2부두에 계류 완료했다.

A호에는 승선원 14명(중국 국적)이 타고 있었으며, 화물(발전기 부품) 146t과 유류 약 47t이 적재돼



있었다. 구조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와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백금타기자 haru@ihalla.com

# 공동주택 화재... 7명 구조

28일 오전 1시 33분쯤 제주시 이도 2동 4층짜리 공동주택 3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안방 일부와 침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6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불이 난 주택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4층 거주자 7명이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층

거주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안방 침대에서 화염과 연기를 처음 목격했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그랜드보청기**

연말연시 불가안정 사은행사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프리미엄형 中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KTBA 최우수브랜드 대상 4회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송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역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이을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사창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점)  
한라체육관    일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A 신시계스랩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